

8/18 (신 17:14-20)

우제윤

제목: 잃어버린 왕

1) 마음을 빼앗는 유혹들

2) 의지함을 배우는 것

한줄요약: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참고: 신명기 김영옥 주석, WBC주석, HOW주석, 메인아이디어 주석

사람들에게 미래의 목표가 무엇이나고 물어보면 공통된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 명예, 권력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거나 영향력이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올바른 가치냐고 물어볼 때 사람들은 망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는 왕정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져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왕에 대한 규정”을 세우시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여야 한다. 그리고 세워진 왕은 말과 여자와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왕위에 세워진 자는 율법을 쓰고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왕에게 하지 말라고 한 세 가지 조건을 왜 걸어두었을까요? 고대 전투에서는 기마부대를 활용하여 전쟁을 하고는 했습니다. 전투에서 기마부대의 병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리기도 했기에 말은 군사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군사력이 강하면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자들을 많이 두지 말라는 이유는 그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왕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은 배교를 의미합니다. 솔로몬 왕이 여인들로 인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향하게 했던 것처럼 마음이 떠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부를 상징합니다. 나라에서 경제력은 유혹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부를 추구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지만 그만큼 유혹이 강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말과 여자, 은과 금은 많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계속 다른 곳으로 분산되게 유혹하고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표하는 왕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율법을 읽고 지키라고 합니다. 날마다 율법을 읽으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지 기억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들을 우리가 섬기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유혹하고 분산되도록 하여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25 (신 25:17-19)

우제윤

제목: 약점을 공격하는 아말렉

1) 압습한 방식

2) 죄에 빠지는 공식

한줄요약: 죄에 빠지게 하는 아말렉을 방어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자

참고: 신명기 김영욱 주석, WBC주석, HOW주석, 메인아이디어 주석

아말렉 민족은 유목민으로 다른 민족들을 약탈하고 도적질하는 도적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은 도적질을 하는 민족이다 보니 상대방이 언제가 약한지,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공격합니다.

그들의 전투방식은 얼마나 치사한지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방식을 하면서 얼마나 압습하고 치사한 방식으로 싸우는지 보여줍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을 겁도 없이 침략하고 공격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 싸울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여 범죄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사탄의 공격과도 같습니다. 나의 약점을 이용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만듭니다.

오늘 날에는 약점을 더 악랄하게 이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빨라지고 더 다양한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시간을 빼어갔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빠르게 얻기 위한 수단들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빠르게 편리하게 얻는 즉각적인 보상을 주면서 도파민을 계속 자극하며 욕망과 쾌락을 쫓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하나님을 찾으려는 시간과 의지 대신 즉각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만 쫓는 쾌락만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오늘의 아말렉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난과 역경을 마치고 쉬고 있을 때에 혹은 피곤할 때 나의 약점이 부각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떨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우라고 하는 것처럼 나의 약점을 파고드는 부분을 무엇인지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공식으로 죄에 빠지게 되는지 확인하여 나의 아말렉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야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죄에서 멀어지고, 나에게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경로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9/1 (신 30:1-10)

우제윤

제목: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시다

1) 포로로 끌려감

2) 흠으신 백성을 데려옴

한줄요약: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있으신 분입니다.

참고: 신명기 김영옥 주석, WBC주석, HOW주석, 메인아이디어 주석

어떤 것이든 계약을 할 때에는 그것을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의 결과가 돌아옵니다. 지키면 계약이 성사되어 복이 오고 지키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되어 불이익이 오고는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언약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에 따라 복과 저주가 따라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은 너희가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함으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돌아오다'입니다. 언약은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복종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저주를 받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1절에서 말하는 언약의 저주가 성취되었음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냐두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1절에서 말한 저주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회개의 세 단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향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모든 계명을 행하는 것으로 회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포로의 해방과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때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불순종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해 저주 받는 상태인 포로로 내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함으로 포로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하여 복 받는 인생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